

주님의 제자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던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및 손수건 집회, 그리고 이스라엘 목회자들의 방문 소식.

‘팔복’ 시리즈

영적인 운유함을 소유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덕이 있으므로 장차 천국에서 넓은 땅을 얻어 영원토록 권세를 누리게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다(3)

이스라엘 전역에 말씀과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 때 주신 비전이 확실히 성취되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약한 영의 세력에서 놓임받아 행복을 찾은 인도 니푸 성도와 6cm가 넘는 크기의 난소 혹이 사라져 건강을 회복한 홍찬에 자매 간증.

만민뉴스

제898호 2019년 7월 2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무슬림 나라에 주님의 사랑 전했어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예수교연합성결회 교단 산하 신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단기선교를 진행했다.

현지 교회와 연계해 가정 심방, 이웃 초청 행사, 찬양 집회, 손수건 집회(행 19:11~12) 등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했다.

함께 웃고 울며 주 안에서 하나 되다

6월 27일, 첫 일정으로 수도 자카르타의 호산나 나라다교회의 성도 18가정을 심방했다. 현지 교회 청년들과 더불어 심방하면서 자신들의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며, 열악한 환경과 무슬림의 위협을 견디며 신앙생활하는 현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었다.

28일에는 호산나 나라다교회에서 ‘한국의 날, 만민의 날’이라는 주제로 한식, 한복, 한글, 한국 전통놀이 체험과 권능 체험 부스를 운영해 복음을 전하고 만민의 사역을 소개했다.

29일 오전에는 여러 교회 청년들과 어우러져 체육대회를 통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고



혜인 자매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니 하나 됨을 보면서,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영혼을 향한 주님의 목마름을 생각하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이날 저녁에는 호산나 나라다교회 청년들과 연합으로 찬양 집회를 개최했다. 신학생들은 간증과 더불어 부채춤, 찬양, 위심 등으로 영광 돌렸다. 현지 청년들은 한국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돼 행복하고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만민중앙교회를 꼭 방문해 배우고 싶다고 했다.

조혜영 자매는 “현지 성도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나라와 언어는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체험했지요. 작은 저를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손수건 집회 통해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다

6월 30일 주일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집회가 3개 교회에서 열렸다.

박형렬 목사(광주만민교회 담임)는 땅그랑만민교회에서 ‘하나님의 근본’(요 1:1)에 대해, 이성철 목사(마산만민교회 담임)는 버카시 베들레헴교회와 호산나 나라다교회에서 각각 ‘십자가

의 십리’(사 53:4~6)와 ‘믿음’(히 11:1~3)에 대해 설교한 뒤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다.

그 결과 편마비, 교통사고 후 유증 등이 치료되고 허리, 무릎, 머리 등 각종 통증이 사라졌으며, 시력이 좋아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신학생들은 집회 시 특송과 간증자 안내 및 간증 접수를 도왔다.

7월 1일, 버카시 베들레헴교회에서 열린 찬양 집회에서는 특송 후, 이성철 목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중 특히 마흔다한 찬양에 대해 전했다.

2일 목회자 미팅에서는 150여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특송, 권능 비디오 상영에 이어 이성철 목사가 ‘권능’(롬 15:18)이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한 치료 사례를 전하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증거했다. 권능 사례가 소개될 때마다 목회자들은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인도네시아 서 자바 지역 GPdI 교단의 마틴 스카워 목사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말씀이 사라졌다”며 영적 각성을 위해 선교팀이 다시 와 줄 것을 요청하며 협력 사역을 희망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목회자들, 이재록 목사에게 감사의 마음 전해



리 교회를 방문해 각각 설교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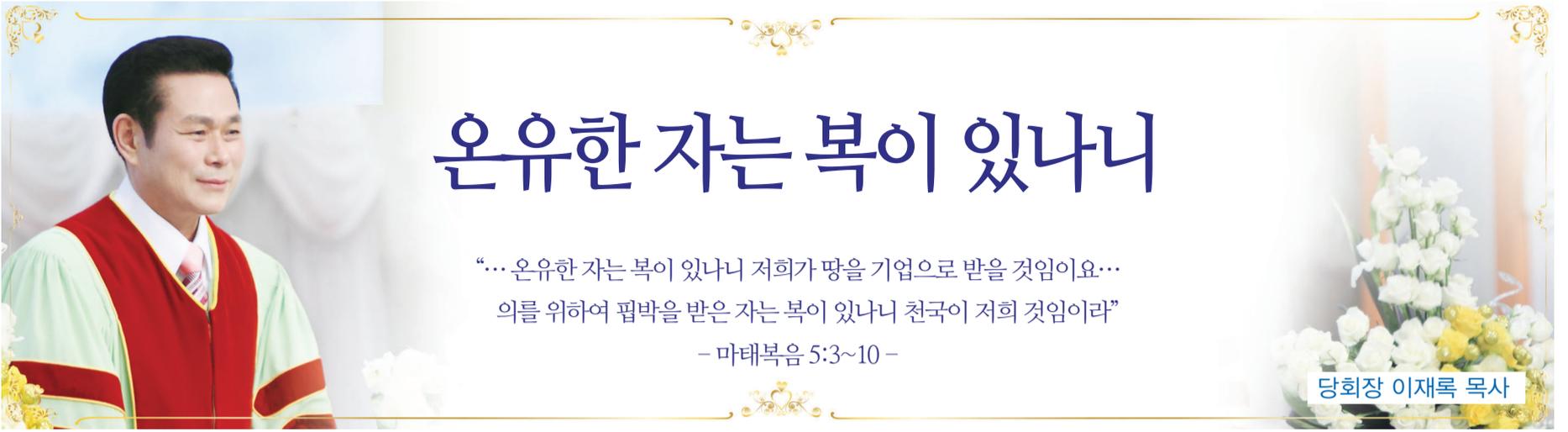
지난 7월 14일 주일 저녁예배 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영광의 왕교회 담임 오렌 램아리 목사는 설교에 앞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2009년에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개신교 부흥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힘을 받아 사역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사랑과 기도, 지원으로 함께해 주고 계십

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하나님의 언약’(히 6:10)이라는 말씀을 증거했다.

한편, 12일 금요일야예배 때에는 이스라엘 목회자협의회인 크리스탈포럼 총무인 올렉 하진 목사(아쉬도트만민교회 담임)가 손영락 장로와 함께 ‘성령이여 오소서!’ 등 여러 곡의 히브리어 찬양으로 영광 돌렸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 마태복음 5:3~10 -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함은 단순히 성품이 유순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덕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지요.

그러면 팔복 중에 하나인 이러한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참된 복의 세 번째 관문 : 온유한 자

1) 많은 사람을 품어 줄 수 있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교양에 맞지 않는 사람도 능히 품을 수 있으며 매사에 악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 주는 숨털같이 부드럽고 포근한 마음이지요.

설령 믿음이 연약해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해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상대가 더 잘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고 도와줍니다. 입술의 말도 요란하게 떠들고 다투며 들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잔잔하며, 많은 말을 허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진리의 말을 냅니다.

또한 자신을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품거나 상처받지 않으며, 권면이나 지적을 받을 때 기쁘게 수용해 자신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과도 걸림이 되지 않고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며 포용해 줌으로 결국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부지런히 마음밭 개간해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에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길가밭은 흙이 단단하게 굳어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밭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강박하고 완고해 진리를 들어도 마음 문을 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혹 교회에 다닌다 해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믿음이 마음에 심어지지 않으니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요.

돌밭은 씨를 뿌리면 싹이 나더라도 돌맹이로 인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확신이 없기에 행하지 못하고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길가밭보다는 낫다 해도 아직 진리로 마음이 개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가시떨기밭은 씨를 뿌리면 잘 자라다가 가시떨기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탐욕과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옥토밭은 땅이 고르고 비옥해 씨를 심으면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직 순종하기에 매사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마음입니다.

물론 길가밭에 돌밭과 같은 마음이 섞여 있기도 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졌어도 성장하면서 돌맹이와 같은 비진리가 심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마음밭을 가졌느냐보다는 얼마나 부지런히 밭을 개간하는지가 더 중요하지요. 누구든지 죄악을 벗어 버리면 선하고 온유한 마음 곧 옥토밭을 이룰 수 있습니다.

3)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악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밭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합니다.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마음에 있는 악들을 벗어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요.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가면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신속히 벗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해도 씨를 심지 않고, 또 인내함으로 가꾸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히 11:1)이므로 부단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나갈 때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악을 버려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악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려 나가면 결국은 성결하며 온유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육적인 온유함과 영적인 온유함의 차이

육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대부분 성격이 조용하고 유순해 큰소리가 나거나 부딪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비진리를 보고도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가 하면, 불편한 일이 있어도 눌러 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통을 받다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면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지요. 사명에 있어서도 충성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기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마음에 비진리를 벗어 버림으로 영적으로 온유한 마음을 이룬 사람은 각 분야에서 부흥의 열매, 전도의 열매 등 풍성한 소출을 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빛의 열매(엡 5:9), 사랑의 열매(고전 13장), 성령의 열매(갈 5:22~23)를 맺어 영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기도하는 것마다 신속히 응답받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지요. 진리로 가르쳐야 할 때는 엄히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심히 범죄하는 영혼들을 볼 때는 사랑으로 책망해 바로잡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있습니다(마 12:34, 23:13~35 ; 눅 11:42~44 ; 요 2:14~16).

고린도전서 13장의 온유함이 영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온유함이라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온유함은 좀 더 포괄적으로 범사에 온유한 것입니다. 또한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효력을 발해 축복을 끌어내리는 것이 팔복의 온유함이므로 가장 깊은 차원이라 할 수 있지요.

3.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말씀한 대로 영적인 온유함을 소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의인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6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월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으로서 천국의 땅을 차지하여 영영히 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시 37:29).

그러면 영적인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에게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다” 말씀한 대로 온유한 사람은 덕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하며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했

기에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면 곧 영적인 권세가 되는 것이요, 천국에서도 큰 권세를 받게 되니 당연히 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권세는 물질이나 명예가 있어야 얻게 되지만 천국에서의 영적인 권세는 마음을 낮추며 섬기는 자가 될 때 얻게 됩니다(마 18:3~4, 20:26~28).

이처럼 영적인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해당하는 만큼 천국의 넓은 땅

을 주어 영원토록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고 경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수많은 영혼을 품어 진리로 인도하도록 귀한 사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넓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지요. 신속히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온유한 자가 되어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선교 12주년 기념 특집 7 >>>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다(3)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8)

* 나사렛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사역

1982년 교회 개척 무렵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깨우라는 사명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신 이스라엘 땅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오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 개척 25주년이 되는 2007년 7월 25일,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 지역 생령교회에서 수요일예배를 인도함으로 이스라엘 사역을 시작했다. 서북부 하이파 영광의 왕교회에서는 주일예배를 인도했다.

이스라엘 1차 방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후 환자기도를 통해 많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등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교두보를 확실히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스라엘 2차 방문 시에는 만민중앙교회 창립기념일인 2007년 10월 10일, 나사렛 생령교회에서 수요일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에는 하이파 영광의 왕교회에서 목회자 모임을 가졌다. 금요일에는 아쉬도트에 있는 ‘기도의 집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날 환자기도로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는 정통 유대인도 있었다. 다음 날에는 하이파에 있는 에벤에셀교회와 생명수교회에서 각각 주일예배를 드렸다.

그리하여 2차 방문은 앞으로 이스라엘 사역을 어떻게 이룰지, 또 어떻게 그곳의 목회자들과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게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

이스라엘 3차 방문은 2007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구의 1%에 지나지 않는 기독교인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고뇌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전하며 힘과 소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3차 방문 이후 이스라엘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힘을 얻고 있으며, 나뉘었던 베들레헴의 교회들도 다시 하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큰 수확은 이스라엘에서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하나의 모임으로 연합되었다는 점이다.

2008년 2월에 있었던 이스라엘 4차 방문 첫 일정은 현지 목회자들과의 만남이었다. 그 뒤 금요일 텔아비브 지역 아프리카계 와보라교회에서 열린 연합 집회 시 목회자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두 교회가 지교회로 가입하였다.

중부 아쉬도트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53년 만에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는 등 많은 치료의 역사가 있었다. 이어 예루살렘 영광의 왕교회에서 집회를 가졌다.

성도들은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설교를 들으며 마음의 문을 열었으며, 수십 년 만에 시력이 회복되고 몸의 마비된 곳이 풀리는 등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다.

* 예루살렘을 거쳐 최남단 에일랏까지

2008년 4월 이스라엘 5차 방문 시에는 예루살렘, 아쉬켈론, 브엘세바에서 집회가 있었다. 이재록 목사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권능으로 치료 역사들을 나타내며 성도들의 신앙을 깨워 나갔다.

2008년 6월, 6차 방문의 의의는 이스라엘 전반기 선교 사역이 끝나는 시점이며 동시에 후반기 사역의 방향을 잡는 시점이라는 데 있었다. 에일랏 집회 후 예루살렘 집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십리’를 전할 때 많은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으며, 환자



기도를 통해 지팡이를 버리고 걸으며 귀신의 역사에서 놓임받는 등 많은 치료의 간증으로 영광 돌렸다.

이처럼 이스라엘 선교는 북부 나사렛에서 시작해 예루살렘, 텔아비브, 베들레헴, 아쉬도트, 브엘세바 등 점점 중남부 지역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마침내 최남단인 에일랏까지 이르렀다.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며, 걷지 못하던 이가 걷고 각종 암, 에이즈 또는 마약 중독 등 수많은 질병과 연약함이 치료되니 많은 교회가 협력교회 또는 지교회로 가입하게 되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재록 목사는 2000년 이후 온 천하에 다니며 전 세계 만민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저를 6년 넘게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니투 찬덜 성도 (26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약 6년 전부터 저는 악몽을 자주 꾸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결혼 후에는 증세가 심해져 장소를 불문하고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는 발작 증세까지 잦았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또한 일하고 싶지도 않아서 남편이 집안일을 대신해야 했으며, 저는 늘 화가 나 있어 남편과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려 했습니다. 이런 저 때문에 남편이 뜬눈으로 밤을 새우느라 출근을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8년 1월, 남편의 직장 때문에 델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고향과 달리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다 보니 증세가 악화돼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지고 두통도 못 견딜 정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 저는 그 주 주일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예배는 물론 금요철야예배와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했고,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매일 들었지요. 처음에는 졸리고 집중이 안 됐는데, 한 주가 지나면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또 예배 때마다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김상휘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쓰러지고 발작하는 증세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영적인 믿음이 생긴 저는 수련회 때 온전히 치료받자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했지요.



도로 심해졌지요. 마치 무거운 것이 제 머리 위에서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해 5월, 동서는 델리만민교회를 소개하며 주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를 따라 기도회에 참석하였는데, 델리만민교회는 GCN방송으로 서울 만민중앙교회에서 진행하는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난생 처음이었지만 화면을 통해 나오는 기도소리와 찬양을 열심히 따라 하고, 끝나는 시간에 틀어주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지요.

그런데 기도받던 중 쓰러져 담임 김상휘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로 깨어난 뒤, 그날 밤

드디어 8월에 열린 ‘2018 만민하게수련회’ 첫날, 저는 인도에서 GCN방송을 통해 참석했습니다. 강사 이수진 목사님이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실 때, 무언가의 힘으로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마음을 집중해 기도를 받았습니. 그러자 이내 제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고 머리를 누르던 것이 벗어지는 느낌과 함께 몸이 가벼워졌지요.

수련회 이후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작 증세가 없었으며 악몽도 꾸지 않습니다. 두통과 온몸 통증도 완전히 사라져 이제는 가족을 위해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 주기도 하지요. 주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6cm가 넘는 크기의 난소 흑이 사라졌습니다!”



홍찬예 자매 (22세, 2청년선교회)

2018년 6월부터 배가 종종 아팠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 때론 잠도 잘 수 없었고, 호흡 곤란과 함께 배가 꼬이는 듯한 경련이 와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지요. 검사 결과, 난소에 6cm가 넘는 크기의 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원래 통증이 없는데 환자분은 통증이 심한 상황이라 흑이 난소와 유착되어 과사됐을 수 있으니 당장 수술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이대로 두면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자 이내 평안해졌고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았더니 괜찮아지곤 했지요.

하나님께서 저가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만의 강한 틀을 만들어 놓고 제 스스로 놀리곤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제가 뭔가를 잘해야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며 마음이 가벼워졌지요.

2019년 1월부터는 치료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자 힘썼습니다. 매달 은사집회 때마다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에서 환자접수로 봉사를 했지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은사집회에도 참석할 수는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사이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5월 은사집회를 마치고 6월 12일 병원에 갔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흑이 사라져 난소가 정상 크기이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최근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6cm가 넘는 크기의 난소낭종을 치료받은 간증을 전하며 권능의 산증인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지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 기도받기 전 좌측 난소에 6.46 x 4.55cm 크기의 난소낭종이 관찰되고 있음. ▲ 기도받은 후 6cm가 넘는 크기의 난소낭종이 정상 범위로 작아짐.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향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2213-207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3430-3312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